

2면 3면 2016년 최저임금 시급 1만원으로

4면 5면 최저임금에 대한 노동자의 생각

“나는 최저임금을 최고임금으로 받는 노동자입니다”

6면 이주노동자 임금 떼먹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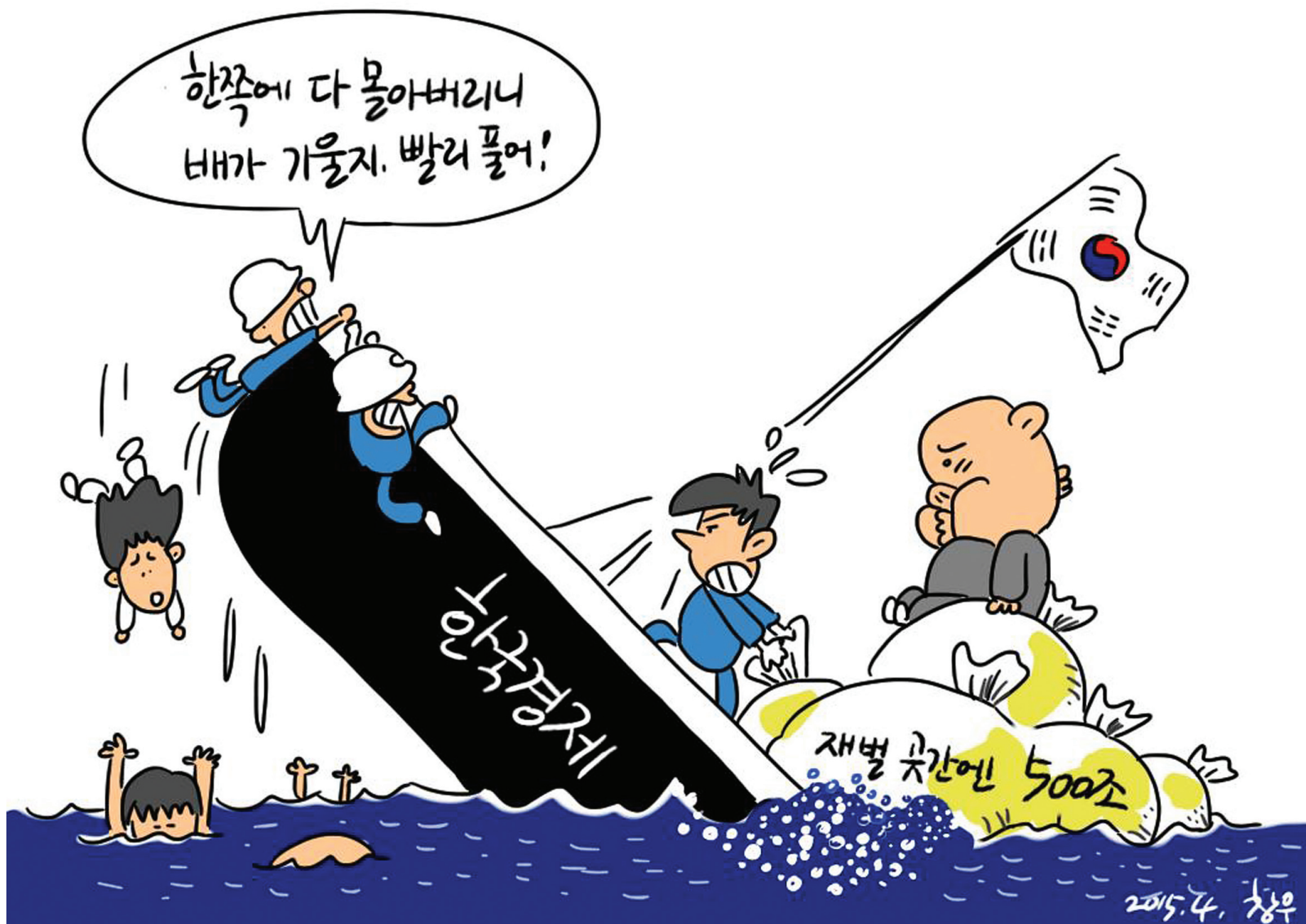
7면 4월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8면 공단구조고도화 이것이 문제다

2016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10,000원(월급 2,090,000원)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32조에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하여 최저임금제를 명시하고 있다. 최저임금제의 목적은 최저임금법 제1조에 나와 있다.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임금을 시장에 맡길 경우 자본가들은 바닥을 향한 임금저하 경쟁을 벌인다. 노동자의 삶은 피폐해지고 노동력은 훼손된다. 노동력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해 최소임금을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를 채택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턱없이 낮아 최저임금제의 목적이 사라져 버렸다. 2015년 최저임금은 시급 5,580원(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 1,166,220원)이다. 이 임금으로 가족생계는 고사하고 노동자 1인 실제생계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중소, 영세,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사장에게 받을 수 있는 ‘최고임금’이 돼버렸다. 고용주들은 최저임금만 주면 법에 걸리지 않으니 딱 그만큼 주고 있다. 최저임금은 저임금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노동자의 입장에서 최저임금이 올라야 임금이 오르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이 조금 열린다. 최저임금은 정부와 자본의 논리, 경제성장 논리에 밀려 찔끔찔끔 생색내기 인상에 그쳤다. 과연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불가능한 것인가?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시대, 임금은 누가 결정하는가

고용노동부 소속 행정위원회인 ‘최저임금심의위원회(아래 최심위)’가 매년 6월말 우리나라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최심위는 민주노총 네 명, 한국노총 다섯 명 등 노동자대표 아홉 명, 사용자대표 아홉 명, 공익대표 아홉 명으로 구성한다. 노사 대표가 결정을 앞두고 맞서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실질 결정권자인 공익위원 아홉 명은 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정부의 의지가 최저임금 결정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박근혜 정부가 ‘저임금 계층 일소’, ‘임금격차 해소’,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해 어떤 정책방향을 펼치느냐에 따라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소득분배조정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와 징벌 배상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진상규명과 선체 인양 약속 어기듯 지키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 지금까지 얼마나 올랐나

박근혜 정부는 2014년 7.2%(350원), 2015년 7.1%(370원) 최저임금을 인상했다. 7%대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분배구조 개선과 내수 활성화 효과를 보지 못했다. 최저임금이 너무 낮아 효과가 나타날 수 없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해답이다.

경총(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물가 인상을보다 높게 올라 경제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매년 너무 많이 오르고 있다며 ‘인상율’을 물고 늘어지고 있다. 문제는 최저임금 절대 금액이 낮다는데 있다. 최저임금액을 대폭 올리고 다른 원인을 얘기해야한다. 최경환 박근혜 정부 경제부총리는 3월4일 “적정수준의

적응년도별 최저임금액						(단위 : 원, %)
적응년도	시간급	일급	인상률	심의의결일	결정고시일	
2015.1.1~2015.12.31	5,580	44,640	7.1(370)	2014.6.27	2014.8.4	
2014.1.1~2014.12.31	5,210	41,680	7.2(350)	2013.7.5	2013.8.2	
2013.1.1~2013.12.31	4,860	38,880	6.1(280)	2012.6.30	2012.8.1	
2012.1.1~2012.12.31	4,580	36,640	6.0(260)	2011.7.13	2011.8.1	
2011.1.1~2011.12.31	4,320	34,560	5.1(210)	2010.7.3	2010.8.3	

최저임금 결정기준 관련 주요 통계 비교			(단위 : 원, %)
	금액	금액(A) 대비 2015년 최저임금 비중(%)	
최임 노동자의 평균가구원 수를 고려한 소비지출 기준	2,089,035 (시간당 9,995)	55.8	
최임 노동자의 평균가구원 수를 고려한 가계지출 기준	2,089,035 (시간당 9,995)	55.8	
2015년 시중노임단가 월환산금액	1,675,971 (시간당 8,019)	69.6	
2015년 민주노총 단신가구 표준생계비	2,276,742 (시간당 10,894)	51.2	
2014년 미혼단신노동자 실태생계비(추정) ×8.2%	1,650,871 (시간당 7,899)	70.6	
2015년 최저임금	1,166,220 (시간당 5,580)	100.0	

임금인상 없이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고 말했다. 최경환은 3월15일에도 “적정수준의 임금인상을 통해 가계 소비를 촉진시켜야 한다”고 다시 말했다.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요구는 과도한가?

헌법과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취지를 고려하면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을 넘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나아가 ‘노동자 본인과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수준의 액수가 되어야 한다.

노동자는 요구한다.

최저임금은 하나, 최소한 생계비는 월 200만원 이상 이어야한다.

둘, 최저임금을 통한 내수 활성화, 소득분배 개선을 실현하기 위해 쥘

끔 쥘끔 ‘단계 인상’은 안 된다.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통해 절대금액을 올려야 한다.

셋, 최저임금은 단신 노동자 생계비가 아니라 가족의 생활안정을 꾀할 수 있는 수준의 생계비를 충족해야 한다. 현재 최저임금 노동자는 2.5명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걸맞게 최저임금 산정 기준을 ‘미혼 단신근로자 실태 생계비’에서 가족을 포함한 기준으로 바뀌어야 한다. 현재의 최저임금 110만원으로 2.5명이 살아가기는 불가능하다.

국제노동기구 ILO 협약 제131호는 ‘최저임금수준 결정에 고려할 요소는 근로자와 가족들의 필요, 경제발전 필요성 및 높은 고용수준 유지를 포함한 경제적 요소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넷,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은 저임금을 전부 끌어버리고 양극화를 해소

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노동과 자본진영의 찬반논리는 무엇

역사적으로 자본 진영은 자신들의 이윤확보를 위해 노동자의 권리를 법, 제도적으로 막아왔고 변화의 요구에 대해 ‘기업이 망한다’며 완강히 거부해 왔다.

최저임금에 대한 주요 논쟁은 ‘고용에 미치는 효과’와 ‘중소, 영세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 매년 반복되고 있다. 최심위에서 경제계는 반대 논리를 매년 앵무새처럼 되뇌며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한국경제와 사회는 극단적인 소득불평등에 신음하고 있다. 이를 잘 처리할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은 ‘최저임금 대폭인상’이다. ‘최저임금 대폭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개선,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고 내수 활성화를 통한 경제회복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한국경제는 더 이상 수출에 의존하면 성장도 유지도 어려운 구조적 어려움에 맞닥뜨려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내수 활성화가 절실하다.

현재 우리 사회는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12%를 거머쥐고 있을 만큼 상위층에 소득이 집중돼 있다. 소비 성향이 큰 서민과 임금노동자의 주머니를 채워줄 때 내수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힘든 이유는 최저임금이 높기 때문이 아니라 쥐어짜는 재벌과 대기업 때문이다. 골목상권을 장악하고 하청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나서는 대형마트와 재벌들이 문제이지 최저임금이 문제가 아니다. 재벌, 대기업부터 최저임금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포함하고 지원방안을 찾아야 한다. 노동자 서민은 팽개치고 재벌, 대기업과 열애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이 문제다.

최저임금 1만원은 국가복지 재정 튼튼, 공공복지 확대에 기여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따른 1인당 사회보험료는 월 77,465원(150인 미만 사업장 기준), 근로소득세는 약 1~2만 원 가량 늘어난다. 이 경우 해당 노동자가 연간 약 100만원의 이상 조세를 부담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 500만 명을 기준으로 연간 5조원의 조세수입이 늘어난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소비 진작으로 부가가치세 징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국가복지를 위한 필요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

세계 각 나라는 지금 최저임금 대폭 올리고 있다. 지난해 6월2일 미

국 시애틀 시의회가 최저임금 시급을 만장일치로 미국 연방최저임금 7.25달러의 두 배가 넘는 15달러(15,360원)로 인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저임금을 올리면 '가계 소득 증가 → 소비 확대 → 기업매출 증가 → 경제 성장'으로 이어진다고 연방 최저임금을 10.10달러로 40% 인상하는 정책(텐-텐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뉴욕, 시카고 등 미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15달러로 인상의 물결이 퍼지고 있다.

일본 아베정부는 임금인상과 이에 따른 내수활성화로 저성장의 늪에서 탈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임금인상을 밀어 붙이고 있다.

임금인상의 흐름을 올해 봄, 내년 봄, 내후년 봄으로 유지해 경제의 선순환을 전국 방방곡곡으로 전한다고 한다. 독일은 올해 최저임금 시급을 8.5유로(1만2천원)로 인상했고, 호주는 16.87호주달러(1만6천원)로 결정했다. 중국은 27개성과 자치구에서 최저임금이 지난해 보다 평균 17%가 올랐으며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도 노동자들의 시위와 적극적인 행동으로 올해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했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위한 500만 서명운동 진행중

최저임금은 정부의 정책 의지에 따라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구조다. 이런 구조 아래에서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위한 사회 여론과 실천이 결정적 변수다. 최저임금 인상 투쟁은 모든 국민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국민임투'인 만큼 나부터 실천하고 참여해야 한다. 그 첫 발로 500만 서명운동부터 시작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주요논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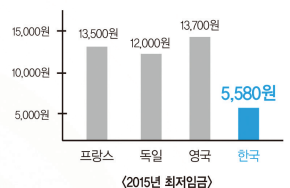
항목	경제계	노동계
고용에 미치는 효과	사업주 부담이 증가하여 고용이 감소한다.	- 고용감소 효과는 통계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 설사 잠시 영향을 미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내수 활성화해 고용이 증가한다.
중소, 영세기업에 미치는 영향	중소, 영세기업 부담이 증가하여 망하는 기업이 늘어난다.	- 저임금 노동에 의지하는 중소기업이나 한계기업은 퇴출해야 한다. - 재벌, 대기업이 최저임금 인상만큼 납품단가 인상 등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고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월 급여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비고
현행 최저임금	1,166,220	52,470	7,580	37,700	4대 보험료 77,465원 더 걷힌다
최저임금 1만원	2,090,000	94,050	13,585	67,580	

노동자 · 서민 살리는 최저임금 1만원!

한 끼도 맘 놓고 먹기 힘든 최/저/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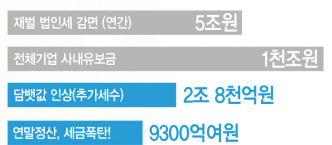
최저임금 5,580원. 최저임금이 기준임금이 되고 최고임금이 된 현실. 노동자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 저임금을 받습니다. 최저임금이 너무 낮아 장시간 노동으로 임금을 보충합니다. 연평균 노동시간이 OECD국가 중 2위로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벌들은 돈잔치! 서민 주머니 터는 박근혜정부

재벌에게는 갖가지 혜택으로 세금을 인하여 주며 부족한 세수를 서민에게 전가하는 박근혜정부!

재벌에게 세금을!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1만원을!



최저임금 1만원, 월급 200만원으로!

대충 이자 갚고 월세 내며 한 달을 살다보면 손에 남는 건 빚... 저축은 꿈도 못 꾸는 서민들에게 월급 200만원도 많은 돈이 아닙니다. 한 가족이 먹고 살기 위한 최소한의 생계비 200만원이 되려면 시급 10,000원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 1만원, 월급 200만원 당당하게 요구합시다!

최저임금 인상은 세계적 추세

뉴질랜드,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등은 1만원이 넘고 독일, 프랑스, 영국은 우리나라의 두 배가 넘습니다. 미국도 최저임금 인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의회 연설
"만일 당신이 연봉 15,000달러(월140만원)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GO TRY IT! 당신이 최저임금으로 한번 살아보라! 미국 최저임금을 현재의 시간당 7달러 25센트(8,000원)에서 10달러 10센트(11,000원)로 높여야 한다."

영세상인과 함께 살기 위한 길입니다

신규창업 100명 중 85명이 3년 안에 문을 닫습니다. 희망퇴직 · 권고사직으로 밀려난 이들이 가게를 처리지만 빚만 지고 폐업합니다. 반듯한 일자리가 있다면 위험한 창업대신 일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또한 프랜차이즈 가맹비용을 낮추고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 월 임대료 제한, 권리금 보장 등의 조치가 함께 진행된다면 영세상인들이 살아갈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최저임금 1만원에 담긴 우리의 요구입니다.

500만 서명운동에 함께 해요!

- 직장 동료와 가족에게 최저임금 1만원 서명을 받습니다.
- 주변에 있는 하청노동자, 경비노동자, 청소노동자 등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서명을 받습니다.
- 온라인 서명도 받습니다. <http://nodong.org/up10000>
- SNS로 지인들에게 알립니다.

스마트폰에서
금속노동자를 볼 수 있습니다.

m.ilabor.org



“나는 최저임금을 최고임금으로 받는 노동자입니다”

인전에서

나와 내 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임금’을 받으면서 일하고 싶습니다



〈자료사진〉

우리로 이 가게는 소주가 얼마인지, 안주는 얼마인지 보면서

이곳저곳을 기웃거리고 싶지 않습니다. 단지 부담 없이 동료들과 기분 좋게 먹고 다음날 기분 좋게 출근해서 커피 한 잔 하며 나와 내 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임금’을 받으면서 일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 잔업을 마치고 동료들과 삼겹살을 먹으러 공단 근처 먹자골목에 갔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 한명이 가게를 지나갈 때 마다 가에 안을 기웃거리더군요. 왜 그러냐고 묻자 “응, 소주 값 삼천원인지 보는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언제부터인지 잘 모르겠지만 식당에서 소주가 삼천원에서 사천원으로, 맥주 500CC 한잔도 사천원으로 오른 곳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가게들을 기웃거리다 공단 외진 곳에 있는 고기 집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맥주와 소주가 삼천원, 삼겹살 1인분에 칠천원. 오랜만에 칠천원 짜리 삼겹살을 써서 반가운 마음에 이것

저것 많이 시켰습니다. 고된 일 끝나고 먹는 삼겹살과 한 잔의 술은 언제 먹어도 잘 넘어갑니다.

고기가 익고 술을 한 병, 두병 비워갈 무렵 동료 한두 명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하는 이야기, 회사에 대한 불만, 관리자들에게 대한 불만, 뒷담화, 집안 사정 등 다양한 이야기가 오고갔고 우리 중 경력이 가장 오래된 형이 ‘임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입사한 지 15년 된 형은 우리터러 15년 전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도 모르고 다른 동료들도 모르긴 마찬가지. 그 형은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당시 하루

일하면 일만 오천 원 정도를 벌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임금도 오르고 최저임금도 올랐지만 자기 생활은 나아진 게 없다는 하소연을 합니다.

“이 회사 어렵게 들어와서 매일 잔업에 주말 특근에, 철야도 하고 사람도 못보고 내 취미생활도 못 만들면서 일했는데 오늘 쉬는 시간에 우리 한 시간에 얼마 버는지 생각해보기가 5,500원이더라, 담배 한 갑에 캔커피 하나 딱 먹을 수 있는 돈 버는 거야.”

“15년 전 나 혼자 살 때도 월세내고 관리비내고 보험에다가 우리 마누라랑 데이트 한 번 하려면 하루 번돈이 한 번에 날아가고 적금을 들어

도 정말 빠듯했어. 지금은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고……. 학원비에 막내 기저귀 값에, 예방접종이다 뭐다 진짜 물가만 올랐지 따지고 보면 우리 월급은 변한 게 없더니까?”

다들 비슷한 생활을 하고 있어서 인지 고개들을 끄덕입니다. 옆 라인 동료는 혼자살고 있는데 장 몇 번 보고 핸드폰 요금내고 술자리 한두 번 하면 월급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며 쓴웃음을 짓습니다. 가만히 이야기를 듣고 있던 라인 막내가 한마디 합니다. “최저임금 정말 비현실적인 거 같아요. 저는 월급에서 용돈을 딱 정해서 쓰는데 이렇게 별어서 언제 보충금 마련해서 전세로 갈 수 있을지, 결혼은 할 수 있을지, 적금액은 언제 더 늘릴 수 있을지 정말 걱정이 되더라고요.”

순간 분위기가 어두워져 얼른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전환했지만 술자리가 끝나고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 곰곰이 생각을 하니, 막내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잔업, 특근, 연장, 철야, 조출에 주야근무를 해도 손에 쥐는 돈은 이백오십만원 남짓. 시간 당 일만원도 안 되는 돈을 벌 수 있는 내 신세도, 우리 같은 사람들 신세도 안타깝고 걱정이 돼 한숨만 나옵니다.

얼마 전 뉴스에 최저임금을 7% 올리겠다는 정치인이 나왔습니다. 7%, 4백 원 남짓한 돈 올려서 무엇을 하라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껌 한통에 5백원이 넘는 시대인데 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최저임금이 현실적이지 못하니 사람들은 야간고정 일자리를 구하거나 시급이 높은 곳으로 가길

원합니다. 내 취미와 인간관계를 포기하고 말이죠. 그렇게 야간 수당을 받으며 몸이 망가지는 것도 모르고 일하다 어느 순간 모아두었던 돈이 병원비로 나가는데 말입니다.

이 월급을 언제 모아서 집을 사고 아이들을 키우며 살 수 있을지 솔직히 막막합니다. 가끔 호기롭게 동료들에게 내가 쓴다며 한 잔 하자고 하고 싶지만 주저하는 현실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우리 같은 일하는 사람들은 최저임금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회사는 상여나 수당을 없애고 기본급으로 채워 넣고 삭감합니다. 최저임금이 올라도 오르게 아니지요. 그런데도 정부는 담뱃값을 올리고 소주 값을 올리고 안올리는 게 없을 정도로 물가는 치솟고……. 나라에서는 우리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려고 만들었던 최저임금이 노동자들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그저 돈 많고 집 좋고 여유로운 사람들 입에서 머리에서 나왔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로 이 가게는 소주가 얼마인지, 안주는 얼마인지 보면서 이곳저곳을 기웃거리고 싶지 않습니다. 단지 부담 없이 동료들과 기분 좋게 먹고 다음날 기분 좋게 출근해서 커피 한 잔 하며 나와 내 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임금’을 받으면서 일하고 싶습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이 글을 보고 꼭 현실적인 최저임금을 결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전 남동공단 한 제조업노동자

부산에서

최저시급이 최저임금이라는 뜻이 남의 나라 이야기인줄 알았습니다

새벽 5시30분이면 어김없이 벨이 울린다. 전쟁 같은 하루를 시작하는 충성이다. 두 아이를 챙기고 남편도 하루 노동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다 보면 어느새 나의 바쁜 일과 속으로 뛰어 들어간다. 통근차를 놓칠까 싶어 내 꼬리에 불이 난 것처럼 하염없이 뛰고 달린다.

저는 공단 식당에서 일하는 시간제 노동자이지요. 열심히 뛰며 살아도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최저시급, 최저임금으로 살 수밖에 없는 여성 노동자이지요.

‘왜? 우리나라 여성노동자는 남성의 비해 시급이 약한지. 일은 똑 같이 하는데…….’ 이 시급에 안주해서 살아야하는지 실망스러운 생각이 들지만 내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어쩔 수 없이 저임금으로 살아 가고 있지요.

하루하루가 힘들고 지쳐있어도 꿈을 꿀 수 있는 내일이 있다면 나를 위해 생각할 여유가 있겠지만 지금은 최저임금으로 열심히 사는 게 목적이 되어버린 현실입니다. 물가대비 임금은 따라주지 못 해 늘 가정은 자녀교육, 노후대책조차 생각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노동자의 욕심은 별 것 없습니다. 임금이 많이 오르면 좋겠지만 조금 더 올라 내 가정에, 내 생활에 힘이 되는 현실을 기대합니다. 흐드러지게 피는 봄꽃처럼 저임금으로 살아가는 노동자에게 아름다운 세상, 활짝 웃는 세상을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전합니다.

참, 나도 몰랐는데 나와 같은 처지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내 주위에도 많더라고요. 눈물이 나네요. 무슨 말이고 하니 우리 옆집 사는 아주머니 사연입니다. 늘 오고가면서 인사만 하고 같



▲이 아주머니는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새로운 삶을 위해 중소기업에서 노동자로 일하기 시작했지만 사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인 줄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최저시급이 최고임금이라는 뜻이 남의 나라 이야기를 알았고 꿈에도 생각지 못 했다고 합니다. (자료사진)

이 차도 한잔 못하고 지냈는데 어느 날 우연히 퇴근길에 한 동네에서 만나면서 아주머니의 처지를 알았습니다. 우리 같은 마음으로 “우리 차나 한 잔 할까요?” 하면서 커피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주머니의 모습은 너무나 무거워 보였습니다. 옆집 아주머니는 나에게 언니라는 호칭을 쓰면서 말문을 열었습니다. “응, 웬 언니야?”라고 하니 오고가면서 다른 층 사람들에게 나이 정도는 물어봐서 알고 있다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슬피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아주머니는 가슴속 깊이 있는 사연을 얘기했습니다.

아저씨는 대기업 간부로 있으면서 잘 나가는 시절이 있었지만 잠깐이었다고 합니다. 부도가 나서 명예퇴직을 했지요. 받은 퇴직금으로 조그만 고기집을 열었지만 얼마가지 않아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장사에 소질이 없는 사람이 돈이 있다고 장사를 열었다가 망한 것입니다. 있는 돈, 없는 돈 몽땅 모아서 했던 고기집마저 망하고 아파트에서 우리가 사는 다세대 주택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 아주머니는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새로운 삶을 위해 중소기업에서 노동자로 일하기 시작했지만 사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인 줄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최저시급이 최고임금이라는 뜻이 남의 나라 이야기인줄 알았고 꿈에도 생각지 못 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열심히 맞벌이로 벌어도 삼백만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집은 여자아이 둘에 들어가는 사교육비만 150만원. 150만원 못되게 남은 데 생활비, 통신비 등 손에 남는 돈은 늘 마이너스. 이런 생활을 일 년 정도 해 보니 허리는 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할 수 없이 두 아이에게 미안하지만 학원비를 반으로 줄이자고 얘기하고 뒤돌아 한 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긴 시간을 이야기하면서 도저히 최저임금으로 살 수 없는 생활의 어려움을 구구절절 이야기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주머니도 노동자 속으로 들어왔고 나와 같은 처지의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부산 북산공단 한 식당노동자



책상을 마주하고 앉은 동료는 웃음을 참느라 “끼익 끼익 크익”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었다. 어깨 너머 봤더니 인터넷 웹툰 ‘송곳’을 보고 있었다. 그 길로 ‘송곳’의 팬이 됐다.

웹툰 ‘송곳’의 노동상담소 구 소장은 ‘떼인 임금 받아 드림’이라고 적힌 명함을 들고 다닌다. 어느 날 구 소장이 아파트 놀이터 정자에서 이를 째 한뼉잠을 자던 ‘좀 모자라 보이는’ 청년 한 명을 발견했다. 국밥 한 그릇 사 먹으며 사정을 들어 보니 공단 안에 있는 중국집에서 배달을 했는데 오토바이 망가뜨렸다고 여섯 달 일한 임금을 한

두 장만 더 모으면 양장피 주는 쿠폰 포기하실래요?

임금 떼이고 매 맞은 중국집 요리사 이주노동자와 웹툰 ‘송곳’

푼도 못 받고 쫓겨났단다. 다시 찾아오면 죽인다고 엉덩이를 빼는 청년의 팔을 잡아끌고 구 소장은 그 중국집을 찾아갔다.

덩치 좋은 ‘형님’ 같이 생긴 중국집 사장은 체불임금 받으러 왔다 했더니 자기가 도리어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영업방해로 경찰 부르기 전에 썩 나가라고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다. 임금 떼먹으면 “근로기준법 36조 위반,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 했더니 “나가, 이××야” 욕설만 돌아왔다.

그러자 구 소장이 사장 앞에 휴대폰을 딱 하니 놓고 스피커폰으로 돌려놓더니 노동조합 사무실마다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중국집 신선각 알지? 거기서 회식하지 마. 시켜먹지도 마.” 구 소장은 그 공단 노동조합들의 ‘형님’ 이고, ‘사부님’이었다. 전화를 받은 곳마다 뭘 일인지 묻지도 않고, “안 가겠다, 예약 취소하겠다, 조합원들에게도 알리겠다”고 했다. 전화 받은 누군가가 두 장만 더 모으면 양장피 주는 쿠폰은 어쩌냐고 했더니 옆 사람이 “버려”라고 했다. 키득키득 웃던 웃음이 박장대소가 되어 터져 나왔다. 대여섯 통 전화를 했을까? 중국집 사장님은 사색이 되었고, 호칭이 ‘새끼’에서 ‘사장님’에서 ‘형님’으로 바뀌더니 체불임금 7백만 원을 현금으로 내주었다.

아, 안타깝다. 글로는 만화의 그 재미를 표현할 수가 없다. 최근 이주노동자 상담 목록에 중국집 요리사 상담을 추가했다. 요리사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송출회사 브로커에게 일천만 원이 넘는 돈을 주고 전문인력에게 준다는 E-7 비자를 받아서 한국에 들어온다. ‘설거지, 청소, 양파까기 등 한국에서 요구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며, 불법체류 할 생각은 죽어도 하지 않는다’는 동의서에 서명을 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첫 석 달치 임금을 저당 잡힌다. 신분증을 빼앗긴 채 새벽부터 밤까지 죽도록 일하고 120~13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데 이조차 수개월 체불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죽어도’ 하지 않기로 한 불법체류를 선택하기도 한다.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계산해 주지 않으니 요리사 이주노동자들이 임금체불로 상담을 와서 체불액을 계산해 보면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2~3배 많은 임금이 체불되어 있는 경우가 태반이어서 임금체불액이 일천만 원 단위를 훌쩍 뛰어넘고는 한다. 이런 식당들은 이름을 대면 알만한 고급 음식점이나 체인점들이 많다.

식점이나 체인점들이 많다.

3월12일 부산 기장에서 중국집 요리사로 일했던 이주노동자가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하고 출석조사를 마치고 나오다 노동청 문전에서 붙들려 경찰서를 거쳐 외국인보호소에 갇혀버린 일이 생겼다. 이 이주노동자는 하루 13시간씩 1년 10개월을 일하는 동안 못 받은 임금이 1,600만원이었다. 사장은 이 임금을 주지 않으려고 다른 네 명의 남자와 함께 노동청 출입문 앞에서 지키고 섰다가 이주노동자의 목을 누르고 팔을 꺾어서 붙들어 놓고 경찰에 신고를 했던 것이다. 이주노동자와 동행했던 인권단체 활동가는 성인 남자 여럿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땅바닥으로 내동댕이쳐졌다. 냅다 달려온 경찰은 이주노동자와 인권단체 활동가를 같이 경찰서로 끌고 가서 이주노동자에게 어떤 진술도 받지 않고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미등록 체류자라는 이유로 출입국사무소로 넘겨 버렸다.

이 이주노동자는 이주인권단체들의 항의로 일주일 뒤 보호일시해제(일시적인 구금 해제)로 보호소에서 풀려 나왔다. 만약 이주노동자가 인권단체의 도움 없이 자기 힘으로 체불임금 받아보겠다고 노동청에 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출입국사무소는 보호소에 가둬 뒀다가 강제출국 시켜 버렸을 것이다. 임금 떼먹기 참 좋은 나라다.

3월18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임금체불 이주노동자 피해구제 목살한 경찰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보호소에서 풀려 난 피해 이주노동자는 평평 터지는 카메라 앞에 서서 자신이 겪은 일을 말했다. 이주인권단체들과 함께 부산시청 앞에서 농성하고 있는 민주노총 동지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 있어 주었다.

웹툰 제목이 ‘송곳’인 이유는 “다음 한 발이 절벽일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도 꺾이기 밖으로 기어이 한 걸음 내딛고 마는 그런 송곳 같은 인간들”이 주인공들이기 때문이다. 이탈신고와 강제출국 협박을 무릅쓰고 “내 임금 내 놓으라”고 카메라 앞에 선 이주노동자도 송곳 같은 인간이고, 자신들의 사정도 절박한데 그 뒤를 지켜 서주고 먹을거리를 내어 준 농성 노동자들도 송곳 같은 인간들이다. 송곳들은 허울뿐인 근로기준법보다 두 장 더 모으면 양장피를 주는 쿠폰을 포기하는 ‘결단’이 더 절실하다.

이한숙 <이주민과 함께> 부설 <이주와 인권연구소> 소장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을 권리를 위해

매년 4월은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입니다



지난해 90,909명의 노동자가 현장에서 일하다 재해를 당했다. 노동자 1,850명이 일하다 사망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가 전체 사고의 80% 이상 차지하고 있다. 사망사고 중 58%가 50인 미만 사업장 일어났다.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해 5월22일 서울 광화문에서 금속노조 조선소 노동자들이 '중대재해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상경투쟁'을 벌이고 있다.

마산수출 자유지역에서 철판을 자르는 일을 하던 노동자가 손가락 세 개가 끊어 졌는데 회사 측은 두 달 치 월급과 치료비 3만원을 주고 해고시켰다. 이 노동자는 병신이 된 것을 비관해서 자살했다. '손가락 하나에 1만원씩'이라는 우울한 유행어가 나돌기도 했다. (김동현, '르브르 근로자', [신동아] 1974. 11, 209쪽)

1988년 7월2일 온도계를 만드는 서울 영등포 공장에서 15세의 소년 노동자가 수은 중독으로 목숨을 잃

었다. 이 소년 노동자는 하루에 11시간씩 압력계 커버의 신나 세척, 페인트칠, 온도계의 수은 주입작업을 해왔다. 열악한 작업 환경 때문에 병에 걸린 이 노동자는 1988년 4월7일 노동부에 산재요양신청서를 냈지만 노동부는 10일 만에 산재요양신청서를 반려 하였다. 그러다가 이 일이 신문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면서 6월 말에야 요양승인이 나왔으나 승인 이틀 만에 노동자는 운명하고 말았다. 소년 노동자의 이름은 바로 '문송면.'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일할 권리를

1988년 소년 노동자 문송면의 죽음은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노동안전 활동가와 노동자들은 문송면 같이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의 죽음은 자본의 이윤 때문에 발생한다는 사실을 사회에 폭로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일 할 권리'를 요구하면서 투쟁에

나섰다. 이들은 1990년 전국 산업재해 추방의 달 공동사업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7월 산재추방의 달 사업을 진행했다. 1990년 이후 매년 7월 산업재해 문제를 집중적으로 사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2002년 이후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로 시기와 명칭을 바꿔 노동자 건강 문제를 사회에 알렸다.

2015년 노동자는 건강한가?

2015년에 사는 노동자들은 여전히 위험에 내 몰리고 있다. 중소 영세 사업장 노동자는 건강권과 생명권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2014년 산업재해 통계를 살펴보면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90,909명의 노동자가 현장에서 일하다 재해를 당했다. 노동자 1,850명이 일하다 사망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가 전체 사고의 80% 이상 차지하고 있다. 사망사고 중 58%가 50인 미만 사업장 일어났다.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위험에 많

이 노출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소 영세 사업장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형식적이다. 노동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사업주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과 처벌 대신 '자율안전'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주 스스로 안전을 관리하라고 한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고 있는 꼴이다. 사업주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자의 목숨을 파리 목숨쯤으로 보고 있다.

이윤보다 노동자의 몸과 삶

현재 노동 현장엔 작업장이 아니라 '인간 도살장'이라는 표현이 지나치지 않는다. 공식기록으로 한 해 2천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추락해서 죽고, 깔려서 죽고, 불에 타 죽고, 질식해서 죽고, 제품에 맞아서 죽고 있다.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논리에 더 이상 노동자들이 희생당해서 안 된다. 노동자의 죽음으로 사업주의 이윤을 뽑아내는 비인간적인 사회를 바꿔야 한다. 죽음의 행진을 멈추고 노동자의 몸과 삶을 지키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가장 시급히 확보할 노동자의 권리는 작업거부권이다.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동자들이 위험한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사업주를 강력히 법으로 처벌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노동자 스스로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찾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 올해 '4월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에 노동자 건강권 문제를 다시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만들어야 한다.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일하고 싶다'는 외침은 여전히 유효하다.

〈마창 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공장, 일자리 사라지는 공단 구조고도화 그만

인천지역 공단 개발사업 민간자본 투자비율 높아 부동산 개발 위주 우려



▲공단 구조고도화 사업은 부동산 개발에 눈 먼 자본이 뛰어드는 사업으로 전락하면 안 된다. 국가와 인천시가 공단 노동자들에게 꼭 필요한 복지시설 건립과 기존 공단 기반시설 유지보수를 중심으로 투자해야 한다. <자료사진>

비에이치는 FPCB(연성인쇄회로 기판)를 제조 하는 매출액 3,000억 원 규모의 회사로 부평공단에서 가장 규모 있는 회사 중 하나다. 12시간 맞교대로 사시사철 휴업 없이 돌아가는 회사다. 생산물량 중 상당량이 삼성전자 스마트폰 부품이다.

<인천지역 노동자 권리 찾기 사업단(아래 사업단)>은 올 해 초 비에이치 3공장이 부평공단에서 주안공단으로 이전한다는 제보를 받았다. 공장이 이전한다는 제보를 한 노동자는 이전 때문에 퇴사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참 소박하다. 한 공장이 이전하면 많은 노동자가 퇴사한다고 한다. 업체들이 공장 이전으로 얻을 수 있는 이윤 중 노동자 대규모 퇴사로 얻는 이윤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사업단은 부평공단 구조고도화 사업 계획에서 비에이치가 '부평 리치플레인'이라는 이름으로 상업시설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확인했다. 병원, 오피스텔, 카페 등이 입주하는 복합시설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사업단은 구미에서 공단 구조고도화 사업으로 제조업을 대폭 축소하고 백화점을 짓겠다는 KEC의 계획을 금속노조 KEC지회와 지역주민들과 함께 막아낸 사례를 확인했기에 긴장했다. 1960년대 만들어 지금까지 생산활동을 지속한 부평공단은 인천지하철 역세권이고 주거지와 가깝고 경인고속도로와 인접해 있다.

사업단은 새로운 부평공단 개발의 서막이라고 판단했다.

인천지역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

1960년 후반 조성한 부평·주안 국가산업단지와 1980년대 중반에 조성한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노후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부평·주안 산업단지는 도심의 팽창으로 공장용지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섰다. 공단 근처 땅값 상승과 입주기업의 소형화·영세화가 진행돼 업체 수는 늘어났지만 업체당 부지면적, 고용인원, 생산액, 수출액은 줄어들어 '쇠퇴공단'으로 분류되고 있다.

인천시는 노후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구조고도화 사업시행자와 입주자에게 적용할 저리 장기 융자계획을 만들었다. 인천시는 공단 안 도로와 역세권을 중심으로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제도 정비를 마쳤다. 남동공단은 2009년 구조고도화 시범단지로 지정돼 공동물류센터, 화물주차장, 주유소, 종합비즈니스센터, 지식산업센터, 보육시설 등 일곱 개 사업을 완료하고 현재 남동공단 입구 고가차도 등 다섯 개 사업을 진행 중이다. 부평·주안 국가산업단지는 2013년 11월 산업통상자원부의 '구조고도화 확산단지 공모사업'에서 1위로 선정돼 구조고도

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남동공단은 전체 예산 8,457억원 중 민간자본이 5,733억원, 부평·주안공단은 1조 2,059억원 중 민간이 1조 589억원을 조달해야 한다. 민간자본 참여가 사업의 핵심이다 보니 현재까지 확정해 진행할 사업은 남동공단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곳에서 세 개 사업, 부평·주안에서 비에이치가 건립하는 리치플레인과 주안공단에 조성하는 PCB집적 단지인 스마트테크노타워 밖에 없는 상황이다.

땅값만 올릴 뿐인 구조고도화 사업 우려

공단 구조고도화 사업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나뉜다. 첫째, 저부가가치 산업에서 고부가가치로 업종변경을 유도한다. 예를 들면 일반 기계보다 정보통신·IT 산업으로, 제조업을 문화·상업 시설로 바뀌어야 더 많은 이윤을 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둘째, 근로자 편의 시설로 산업단지 내 주거·문화 집회 시설 건축을 허용한다. 셋째, 물류, 주차 등 기반 시설을 건설한다.

이 계획의 문제는 수익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민간자본 투자를 핵심 계획으로 세우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다. 인천지역 공단 개발 계획은 그마저도 수익성이 없

다는 이유로 민간자본의 참여가 부진한 상황이다. 한 예로 부평공단 역세권에 비즈니스호텔 건립을 추진했지만 공단 맞은편에 호텔이 올라가고 있고 굳이 산업단지에 호텔을 건설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 계획이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노후한 공단의 유지보수와 투자는 꼭 필요하다. 이것이 꼭 수익성이 난다는 보장이 없다. 상업시설을 활성화 하는 방식의 공단 구조고도화 계획은 공단의 제조업 공동화, 산업단지 부지를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부동산 개발만 남을 것이다.

노동자가 일할 맛 나는 공단을

공단노동자들은 인천지역 공단에 새로운 살 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공감한다. 늙은 공단에 활력을 불어넣을 지원과 정책이 필요하다. 열악한 환경이지만 인천의 많은 시민들이 공단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다. 봄이 왔지만 삭막하고 어두운 공단에서 이마저도 느끼기 힘들다. 공단 구조고도화 사업은 부동산 개발에 눈 먼 자본이 뛰어드는 사업으로 전락하면 안 된다. 국가와 인천시가 공단 노동자들에게 꼭 필요한 복지시설 건립과 기존 공단 기반시설 유지보수를 중심으로 투자해야 한다. 땅값 올리는 부동산 개발 정책을 포기하고 영세한 업체들이 높은 임대료 부담 없이 생산에 전념할 수 있는 제조업의 울타리로 만들어야 한다.

바지락

환영합니다.
여러분과 주변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선정된 원고는
'바지락'에 실리고
소정의 선물도 드립니다.

●원고 접수 및
edit@ilabor.org

●무료 구독 신청
각 지역 상담전화로 신청